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과 연륜에서 얻은 우수한 아이디어 시정에 반영

# 전주시, 노인창의력 경진대회 개최

오랜 경험과 연륜에서 나온 어르신들의 아이디어가 전주 시정에 접목된다

전주시와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회장 이연숙)는 17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지역 어르신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노인창의력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노인창의력 경진대회는 어르신들에게는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상상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과 연륜에서 얻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전주 옛 서체 개발 프로젝트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꽃밭정리 노인복지관 '은빛서체' 동아리는 "고유의 문화가 살아있는 전주 시민의 독특한 옛 서체를 어르신들의 재능과 강점을 활용해 개발·보급해 세대간 통합을 이루고 전통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암노인복지관 '행복지킴이' 동아리는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사례 감소 등 전주시 노인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노인인권 교육 전담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특히 안골노인복지관 '꽃심 나눔 시니어' 동아리는 '할머니 밥상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국의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전주 꽃심 시니어 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1박 2일 동



전주시와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회장 이연숙)는 17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지역 어르신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상상아이디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제6회 노인창의력 경진대회'를 가졌다.

안 전주의 역사문화를 배우고 체험 및 휴스태이를 통해 할머니의 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밖에도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양지 노인복지관 '마이전주알리미'의 △사시사철 피어나라 '꽃심전주', 덕진 노인복지관 '덕진 언저리' 동아리의 △전주관광 프로젝트, 서원노인복지관 '저원 브릿지' 동아리의 '사람과 사람

을 잇다, 사람과 전주를 잇다'를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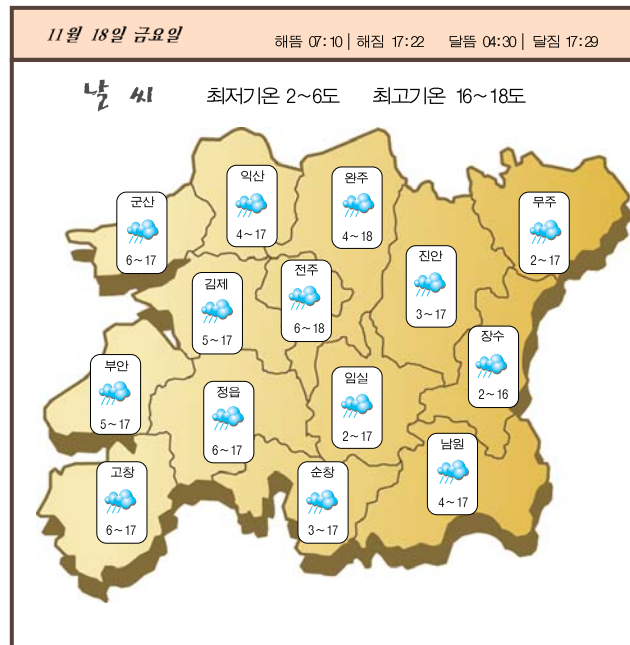
시는 이날 제안된 6개의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을 선정,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연숙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 회장은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어르신들의 의욕과 열정이 너무 뜨거워 놀랐다"면서 "오늘 상을 받은 우수한 아이디어는 전주 시정에 반

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오랜 경험과 연륜, 전주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어르신들의 상상과 꿈, 아이디어가 담긴 전주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오랜 경험으로 연륜을 가진 어르신들과 함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어르신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북지역 대학수능 수험생 최고령 70세 · 최연소 15세

2017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수능)에 전북지역에서는 총 2만 1064명이 응시한 가운데 수험생 중 최고령은 7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12개 시·군 62개 고사장 수험생 중 최고령은 70대 남성이며, 최연소는 10대 여성이었다.

최고령 수험생 허모(70)씨는 검정고시를 거쳐 현재 전주 제일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으며 고 최연소 수험생인 이모(15·여)양으로 원광고고 시험장에서 응시했다.

/고민형기자

## 김장철, 고무호스 꼭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꼭지에 고무호스 연결 악취 발생 호스사용 자제 당부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은희영)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각 가정에서 수도꼭지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17일 맑은물사업본부에 따르면 김장철 배추를 절이거나 세척할 때 고무호스를 연결해 사용할 경우 김장 김치에서 악취가 발생해 김장을 망칠 수 있다

이는 수도꼭지에 연결된 고무호스가 주요 원인으로, 호스 내 가소제 및 착색제 성분의 하나인 페놀 성분이 수도물의 소독제로 투입되는 염

소와 반응하면서 강하고 역한 소독 냄새를 유발하는 클로로페놀류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클로로페놀류'는 강한 화학약품 냄새 등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강한 냄새를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적이다. 끓이더라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염소 소독에 의한 냄새로 오인돼 수도물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맑은물사업본부는 각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고무호스를 사용하지 않고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은 물로 김장 등의 음식을 조리하고, 부득이 고무호스를 사용할 때에는 무취 무독성의 수도용 식수전용 고무호스 또는 실리콘 호스 등을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맑은물사업본부는 수도물을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도 시민들에게 안내해 수도물 음용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수도물을 도자기가 유리용기에 받은 후 20~30분간 놓아두면 시민들이 음용하는데 거부감을 주는 염소 냄새가 사라지며, 냉장고에 2~3시

간 이상 보관해 차게 마시면 잔존산소량 및 청량감이 상승해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다.

이형원 전주시 수질관리과장은 "고무호스 사용시에는 불쾌한 냄새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김장 등 조리 시에는 가급적 수도꼭지에서 물을 바로 받아 사용하거나 식품전용호스를 사용해 달라며 "수도물 맛있게 마시는 방법 등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수도물 음용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푸드 김장채소 직거래 장터 개설

오늘부터 27일까지 송천·효자·경기장점 3곳

전주푸드 출하 농가들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시름에 잠긴 전주 시민들을 위해 직거래장터를 연다

전주시와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김장철을 맞아 지역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김장채소를 오늘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전주푸드 송천점과 효자점, 경기장점 등 직매장 3곳에서 '전주푸드 김장채소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전주푸드는 전주 시민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등 시민의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생산·지역소비형

도시먹거리정책이다.

전주푸드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배추와 무, 고추 등 각종 김장채소와 김장용 부재료들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배추는 2kg기준 1포기에 1500원, 무는 2kg에 1000원~2000원선에 각각 판매되며, 수육과 김치 등 시식코너도 함께 운영된다.

전주시 노한형 친환경농업과장은 "전주지역 농가가 직접 생산해 직거래하는 전주푸드 직매장에서는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신뢰를 쌓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